제13회 무등기 고교야구 D-7

26개팀 참가 12일 개막

작년 우승팀 천안 북일고-동성고 개막전

광주 무등경기장서 8일간 열전

제13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 주최)가 오는 12일 개막돼 8일간의 대열전에 돌입한다.

오는 19일까지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지난 대회 우승팀 천안 북일고와 야구 명문인 광주일고, 광주동성고, 진흥고 등 각 지역예선을 통과한 전국 26개 팀이 출전한다.

참가팀들은 12일 오전 11시 북일고-동성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우승을 향한 대 장정에 오른다.

우승 후보로는 지난해 우승팀인 천안 북일고를 비롯해 광주 진흥고, 광주일고, 동성고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안정된 수비가 강점인 공주고와 화순고, 전주고 등도 우승권 팀들을 위협할 다크호스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 진흥고는 1m88, 95㎏의 듬직한 체구에서 뿜어 나오는 시속 150㎞의 강속구가 일품인 정영일(3년)을 우승 탈환의 선봉장으로 내세운다.

전통 야구강호 광주일고는 지난해 팀 전력을 이끌던 나승현 등이 대거 빠져나갔지만 후배 채선관(3년)과 김훈석(3년)이 막강 마운드의 계보를 잇고 있다. 김강을 필두로 전준수와 박진섭, 김남석, 조성원으로 이어지는 막강 타선을 앞세워 우승을 자신하고 있다.

무등기와 유독 인연이 깊은 동성고도 양현종(3년), 윤명준(2년) 등 최강 마운드를 무기로 통산 네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양현종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좌완 정통파 투수로 140km를 웃도는 강속구가 일품이다. 거포는 없지만 노진혁, 이무진, 임창윤, 임익준 등 정교한 타자가 많아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지난대회 우승팀인 천안 북일고는 강속구와 낙차 큰 커브가 주무기인 장효훈과 장필준, 좌완 김경택 등이 버티고 있는 마운드가 타 팀들을 압도한다.

또 올해 창단 4년만에 대통령기 4강에 오른 '다크호스' 화순고도 눈여겨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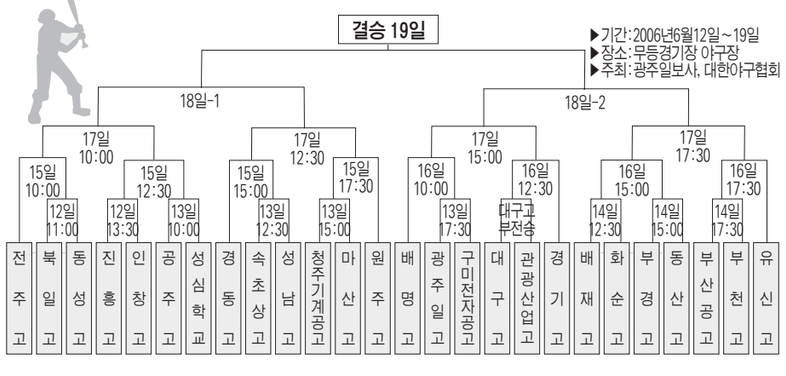
투타에서 크게 눈에 띄는 선수는 보이지 않지만 투수 김선빈이 탁월하다. 작은 체구(1m70cm)에서 뿜어져 나오는 140km대 강속구가 일품이다.

충남 대표 공주고도 수비 야구를 바탕으로 4강에 도전한다. 직구 최고구속 140km를 자랑하는 우완 정통파 김태식과 이웅한 콤비가 마운드를 지키고 포수 정상학이 리드하는 내야 수비가 견실하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체육회와 광주시체육회, 전남도 체육회 등이 공동 후원하고 KBS스카이채널과 KBC 광주방송이 중계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13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대진표



리바운드 쟁탈전

4일 오후 경기도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06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신세계-삼성생명 경기에서 삼성생명의 박정은이 리바운드 볼을 따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3연패

삼성생명에 59-70으로 져

광주신세계가 부진의 늪에 빠졌다.

개막전 첫 승 이후 2연패를 당한 신세계는 4일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과의 2006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4차전에서 59-70(14-26, 10-10 18-19 17-15)으로 완패, 시즌 1승 3패를 기록했다.

승부는 초반부터 삼성생명쪽으로 쏠렸다.

신세계는 1쿼터에만 삼성생명에 26점을 내주고 겨우 14득점을 하는데 그쳤다.

신세계는 이후 양정옥(14점)과 김정은(13점)이 나름대로 분전하며 추격의 꼬삐를 당겼으나 '용병' 미셸 켐벨(12점)의 부진한 플레이가 아쉬웠다.

신세계는 구리 금호생명, 춘천 우리은행과 공동 4위로 떨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4승 실패

플로리다전 5이닝 6실점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투수들의 무덤'에서 시즌 4승 사냥에 나섰지만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패전 멍에를 썼다.

김병현은 4일(이하 한국시간) 콜로라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플로리다 말린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 5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솎아냈으나 홈런 2개 등 9안타 2볼넷으로 6실점하고 팀이 결국 0-13으로 져 패전 투수가 됐다.

시즌 3패(3승)째. 시즌 방어율은 종전 4.17에서 4.97로 치솟았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6㎞. 투구수 89개 중 스트라이크가 58개로 제구력은 나쁘지 않았으나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잡고도 볼 배합이 좋지 않아 집중타를 허용했다.

신용진 시즌 첫 우승

KPGA 아시아나오픈

신용진(44·LG패션·사진)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금호아시아나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시즌 첫 우승을 거뒀다.

신용진은 4일 경기 용인 아시아나골프장 동코스(파72·6천71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4라운드 합계 8언더파 280타로 공동 2위인 양용은(34·게이지디자인), 오태근(29·팀애시워스), 데이비드 글리슨(호주)을 3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안았다.

신용진은 작년 6월 포카리스웨트오픈에서 3년만에 우승을 차지한 뒤 다시 1년만에 정상에 올라 통산 8승을 쌓았다.

앞서 출전한 6개 대회에서 올해 다섯 차례나 톱 10에 든 신용진은 대회 첫날부터 끝까지 선두를 지킨 끝에 기분좋게 우승컵을 치켜들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승엽 천금같은 동점포"

日언론 대서특필

한 경기에서 홈런 두 개를 몰아친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에게 일본 언론도 한 목소리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요미우리 계열 스포츠호치는 4일 "이승엽 홈런 2발, 천금같은 동점포" 제하의 기사에서 전날 세이부전에서 15,16호 홈런을 연달아 터뜨려 팀 4연승에 발판을 놓은 이승엽의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스포츠호치는 "이승엽이 패색이 짙던 8회 외야 광고판을 직접 맞추는 천금같은 동점 홈런을 터뜨려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면서 "일본 진출 후 첫 한 경기 홈런 두개로 이승엽은 시즌 홈런을 16개로 늘려 선두에 1개차로 다가섰다"고 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브넥 KIA 타선 '구세주'

삼성전 솔로 포함 2안타 6-4 승리 이끌어

퇴출 위기에 몰렸던 KIA 타이거즈의 '용병 타자' 서브넥이 맥빠진 타선의 '구세주'로 떠올랐다.

서브넥은 4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경기서 솔로 홈런 포함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활약, 팀의 6-4 승리를 견인했다. 2군에 내려갔다가 지난 2일 복귀한 서브넥은 3일 삼성전도 2안타 1타점을 때려내며 팀의 3-3 무승부에 힘을 보탰다.

이재주의 발뒤꿈치 부상을 틈타 타선에 복귀한 서브넥은 이날 2회 홍세완의 안타와 손지환의 몸에 맞은 볼로 만든 1사 2, 3루에서 좌익수 키를 훌쩍 넘기는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서브넥은 이어 3-2로 살얼음 승부를 이어가던 7회초에도 좌측 펜스를 훌쩍 넘기는 솔로포로 팀 타선에 불을 붙였다.

서브넥의 활약에 힘을 얻은 KIA는 8회 선두타자 이종범의 안타와 장성호 볼넷을 묶어 만든 2사 2, 3루에서 김상훈의 좌익수 앞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하며 승부를 마감했다.

한편 KIA 선발 이상화는 5.2이닝 2실점으로 시즌 2승째를 올렸고 마무리 투수 장문석은 2이닝 1실점으로 시즌 11세이브째를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4일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한화	28	17	1	0.622	-	1패
2	현대	28	18	0	0.609	0.5	1승
3	삼성	26	17	2	0.605	1.0	1패
4	SK	23	23	0	0.500	5.5	2패
4	**KIA**	**21**	**21**	**2**	**0.500**	**5.5**	**1승**
6	두산	20	23	2	0.465	7.0	3승
7	LG	16	29	1	0.356	12.0	3패
8	롯데	15	29	0	0.341	12.5	2승

스포츠중계

5일(월)

▲전국휠체어농구대회(14 : 10·KBS1)

▲메이저리그〈LA에인절스-클리블랜드〉(08 : 55·Xports)